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3 No.51

무역업계가 전망한 한·중 FTA

2014년 11월

명진호 수석연구원

정혜선 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I. 조사 개요	1
II. 조사 내용	3
1. 對중국 수출입 업체	3
2. 對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	11
3. 중국 현지 소재 對中 투자 진출 업체	14
4. 응답 업체 전체	18
III. 결론 및 시사점	22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명 진 호 수석연구원

(☎ 02-6000-5263, thetotoro@kita.net)

정 혜 선 연구원

(☎ 02-6000-5344, hsjung1110@kita.net)

* 『Trade Focus』는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http : //iit.kita.net](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

I. 조사 개요

□ 우리나라 최대 교역상대인 중국과의 FTA 타결을 앞두고 무역업체가 전망하는 한중 FTA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212개 업체가 응답

- '14.9.22~10.31일 동안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동 설문조사는 조사대상군을 ①對中 수출입 업체, ②對中 수출입이 없는 업체, ③중국 현지 소재 투자 진출 업체로 나누고 대상군별로 랜덤으로 조사대상을 추출하여 총 1,212개 업체가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pm 2.8\%p$ 임

【설문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①對中 수출입 업체, ②對中 수출입이 없는 업체, ③중국 현지 소재 투자 진출 업체 등 대상군별로 랜덤(random) 표본 추출
-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서 $\pm 2.8\%p$
- 유효표본 : 1,212개 업체
- 조사기간 : 2014년 9월 22일~10월 31일
- 조사방법 : 조사대상군별로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 (e-mail, 전화, 팩스 조사 병행)
- 수행기관 : 코리아리서치

- 응답업체 1,212개社は 對중국 수출입 업체 74.1%(898개社), 對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 11.1%(134개社), 중국 현지 소재 투자 진출 업체 14.9%(180개社) 등으로 구성

<조사대상 업체 일반정보>

종업원 수	비율(%)	종업원 수	비율(%)	전년도 매출액	비율(%)
對中 수출입 업체	74.1	50명 미만	59.0	100억 미만	52.6
對中 수출입 없는 업체	11.1	50명 ~ 299명	31.9	100억 ~ 1,000억 미만	37.5
중국 소재 현지 투자 진출 업체	14.9	300명 이상	9.1	1,000억 이상	9.9
소계	100	소계	100	소계	100

- 주요 설문내용은 對中 수출입 유무, 중국 현지 진출 여부 등 조사대상군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한중 FTA의 영향, 활용 계획, 대응 방안, 경쟁구도 등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중국 기업의 경쟁력 진단 및 전망, 한중 FTA 이후 FTA 추진 대상 등으로 구성

【주요 설문 내용】

- 한중 FTA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 철폐 효과의 활용 계획
- 한중 FTA로 인한 對中 수출입 변화
- 한중 FTA 이후 신규 수출입 개시 여부
- 한중 FTA 이후 사업 형태 변화 전망
- 한중 FTA 이후 취급 품목 변화 전망
- 중국시장內 경쟁 구도 변화
- 한중 FTA 이후 기존 투자 변화 여부
- 한중 FTA 이후 신규 투자 전망
- 對중국 투자 애로 요인
- 중국 기업의 품질, 품질+가격 경쟁력 진단 및 전망
- 한중 FTA 이후 우선 추진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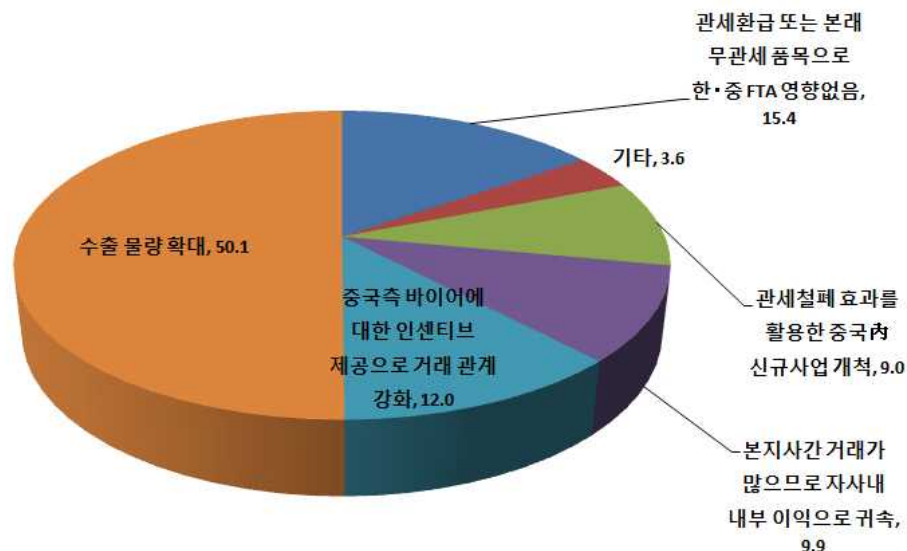
II. 조사 내용

1 對중국 수출입 업체¹⁾

① 對중국 수출업체²⁾

- 對중국 수출업체의 50.1%는 한·중 FTA로 중국의 수입관세(對中 수출시 적용받는 관세) 철폐 효과를 對中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응답
 - 수출업체의 12.0%는 관세 철폐분을 중국측 바이어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해 거래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고, 본지사 거래를 주로하는 9.9%는 자사 내부 이익으로 귀속, 9.0%는 신규사업 개척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응답
 - 수출업체의 15.4%는 이미 무관세이거나 관세환급을 받고 있어 한·중 FTA 영향이 없다고 응답

<한·중 FTA의 중국 수입관세 철폐 효과 활용 계획(%)>



주: N=525

1) 유효표본 총 1,212개 업체 가운데 對중국 수출입 업체는 898개사
2) 對중국 수출입 업체 898개사 가운데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 525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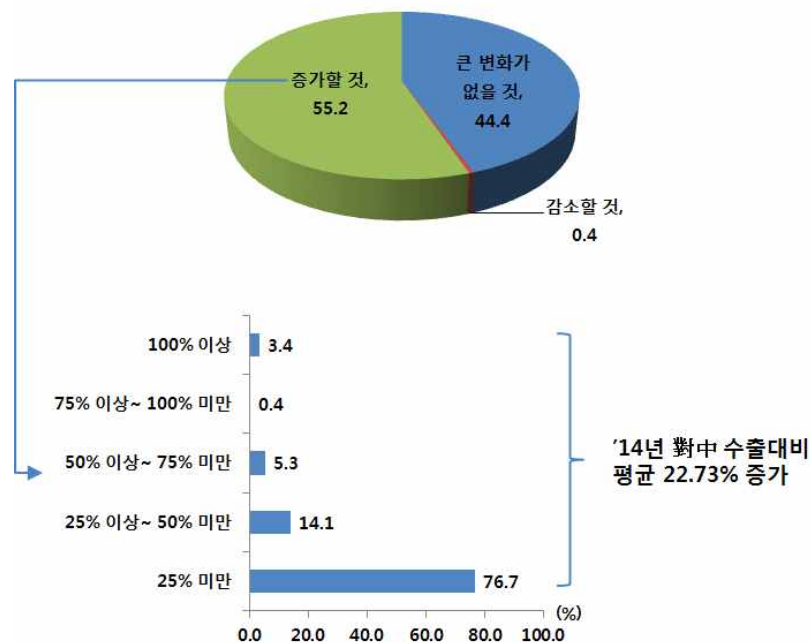
- 중국의 수입 관세철폐 효과 활용 계획에 대해 취급품목 특성별로는 중간재(296개사), 중간재+최종소비재(80개사) 수출업체보다 최종소비재(149개사) 수출업체들이 수출 물량 확대에 더욱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중간재 수출업체는 바이어 인센티브, 본지사간 거래, 관세환급 등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한·중 FTA의 중국의 수입관세 철폐 효과 활용 계획>

취급품목 특성	기업수	수출 물량 확대 (%)	중국측 바이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거래 관계 강화 (%)	본지사간 거래가 많으므로 자사내 내부 이익으로 귀속 (%)	관세철폐 효과를 활용한 중국 내 신규사업 개척 (%)	관세환급 또는 본래 무관세 품목으로 한·중 FTA 영향 없음(%)
중간재	296	49.0	12.2	10.5	7.8	16.6
최종소비재	149	55.0	10.7	8.1	10.1	12.8
중간재 + 최종소비재	80	45.0	13.8	11.3	11.3	16.3

- 한·중 FTA의 수출 전망에 대해 對중국 수출업체의 55.2%는 한·중 FTA로 對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업체들은 '14년 對中 수출 대비 평균 22.73%(연간)의 수출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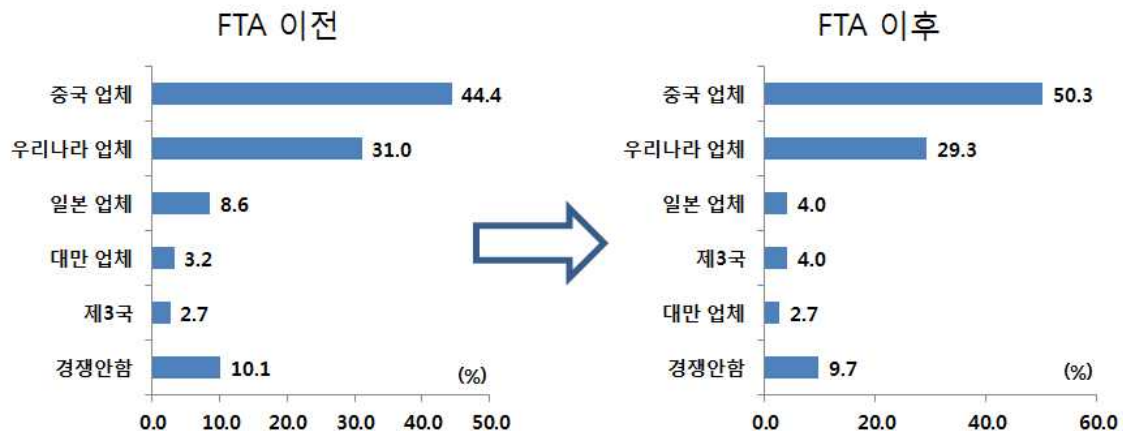
<한·중 FTA로 對中 수출 변화(연간) 전망(%)>



주: N=525, 262

- 한중 FTA 이전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최대 경쟁자를 묻는 질문에 對中 수출업체들은 중국 로컬 기업(44.4%),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31.0%), 일본 기업(8.6%), 대만 기업(3.2%), 제3국 기업(2.7%) 등 순으로 응답
- 對中 수출업체들은 한중 FTA 이후에는 일본 기업, 대만 기업, 우리 기업과의 경쟁은 완화되는 반면 중국 로컬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본격화(44.4%→50.3%)될 것으로 전망
- FTA 이후 유럽, 인도 등 제3국 기업과의 경쟁도 더욱 심화(2.7%→4.0%) 될 전망

<한중 FTA 전후 중국 시장 최대 경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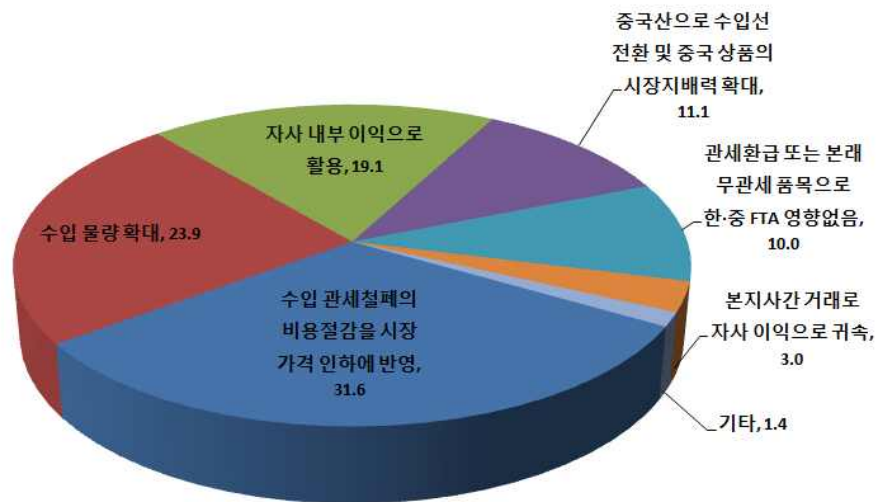


주: N=525

② 對중국 수입업체³⁾

- 對중국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중 FTA 이후 우리나라 수입관세 철폐 효과의 활용 계획에 대한 질문에 관세 철폐분을 시장 가격 인하에 반영(31.6%)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이어서 對중국 수입업체들은 수입 물량 확대(23.9%), 비용 절감을 자사 내부 이익 활용(19.1%), 중국産으로 수입선 전환(11.1%) 등의 순으로 응답
- 수입업체의 10.0%는 무관세 혹은 관세환급으로 한·중 FTA 영향이 없다고 응답

<한·중 FTA의 우리나라 수입관세 철폐 효과 활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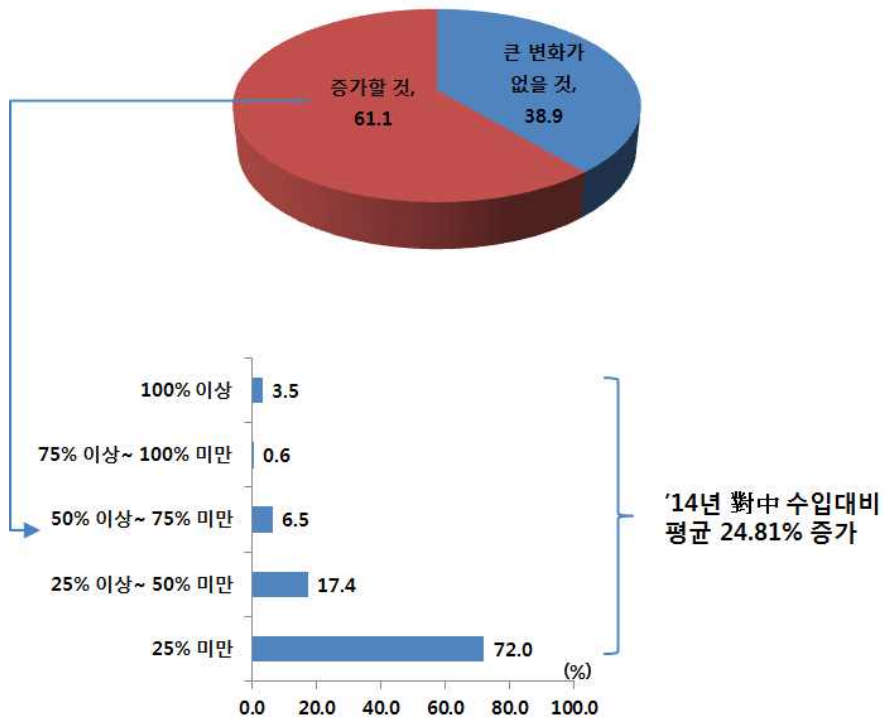


주: N=561

3) 對중국 수출입 업체 898개사 가운데 수입 경험이 있는 업체 561개사

- 한중 FTA 이후 수입 변화에 대해 對중국 수입업체의 61.1%는 한중 FTA로 對중국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이 해당 업체들은 '14년 對중국 수입 대비 평균 24.81%(연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한중 FTA로 對中 수입 변화(연간) 전망(%)>



주: N=561, 343

- 세부적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형태에 대해 부품·소재, 원부자재 등 중간재(45.9%)의 응답률이 가장 높아 최근 부품·소재 중국產 조달 비중 확대의 트렌드를 반영
- 이어서 중간재·최종소비재 모두 확대(31.7%),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소비제품(20.8%) 순으로 응답

<한중 FTA 이후 對中 수입 증가 예상 품목>

수입 증가 품목 형태	응답(%)
한국內 생산에 활용되는 부품·소재, 원부자재 등 중간재	45.9
중간재 및 최종소비재 모두 확대	31.7
한국內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소비제품	20.8

주: N=343

- 한·중 FTA 이후에도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정거래로 현재의 거래선 전환이 어려움(28.4%), 한국산에 비해 품질이 높지 않기 때문(13.3%), 제3국산에 비해 품질이 높지 않기 때문(7.3%), 중국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물품(1.4%) 등의 순으로 응답

<한·중 FTA 이후 對中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응답(%)
고정거래로 현재의 거래선 전환이 어렵기 때문	28.4
현재 사용중인 국내산(한국산)에 비해 품질이 높지 않기 때문	13.3
현재 사용중인 제3국산에 비해 품질이 높지 않기 때문	7.3
중국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물품이라서	1.4

주: N=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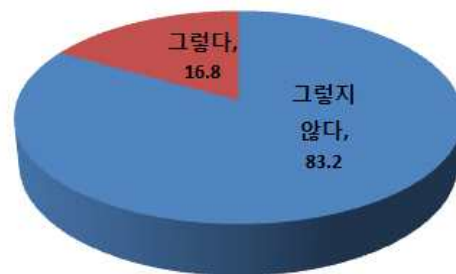
③ 對중국 수출입 업체 공통4)

- 對중국 수출입 업체들에게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현지에서 기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78.4%)라는 응답이 확대할 계획이 있다(21.6%)라는 응답을 상회
- 중국 현지에서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한 질문에도 계획이 없다(83.2%)라는 응답이 계획이 있다(16.8%)라는 응답을 크게 앞지름

<FTA 계기 중국 현지 기존 투자 확대 계획(>



<FTA 계기 중국 현지 신규 투자 계획(>



주: N=898

- 반면에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기업 혹은 제3국 기업으로부터 對한국 투자가 늘어날 지를 묻는 질문에 투자가 확대될 것(51.4%)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48.4%)는 답변을 상회

<한·중 FTA 계기 중국·제3국의 對한국 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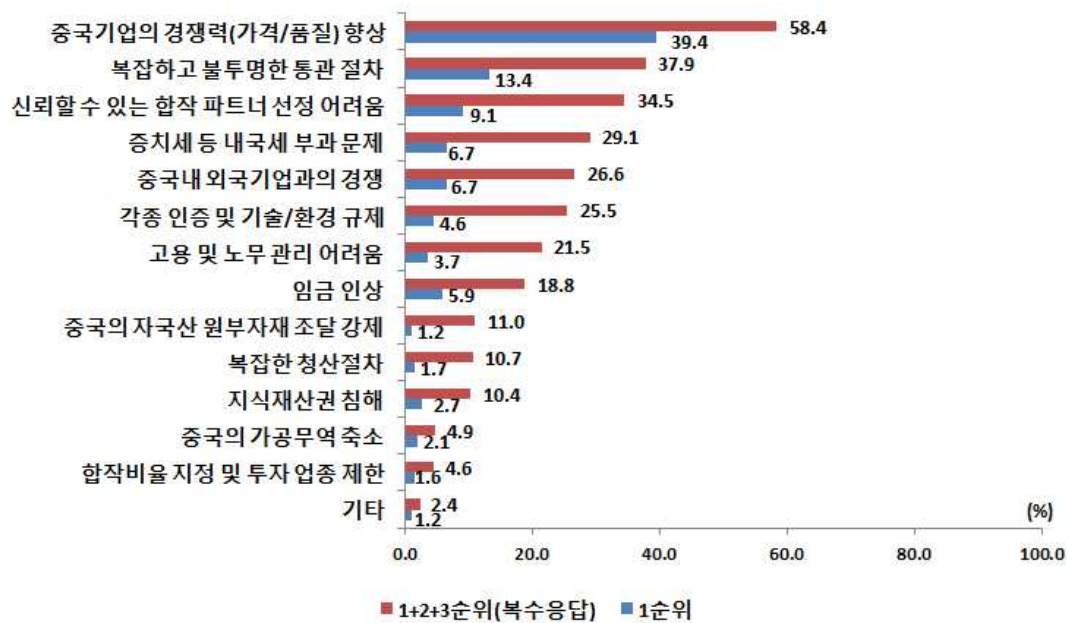


주: N=898

4) 對중국 수출입 업체 898개사

- 對중국 수출입 및 현지투자시 최대 애로 요인에 대해서는 중국기업의 경쟁력 (가격/품질) 향상(1+2+3 순위, 58.4%)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뽑히며 최근 중국 로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
-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 절차(1+2+3 순위, 37.9%), 신뢰할 수 있는 합작 파트너 선정 어려움(1+2+3 순위, 34.5%) 등이 뒤를 이었음

<對중국 사업(수출입 및 현지투자시) 최대 애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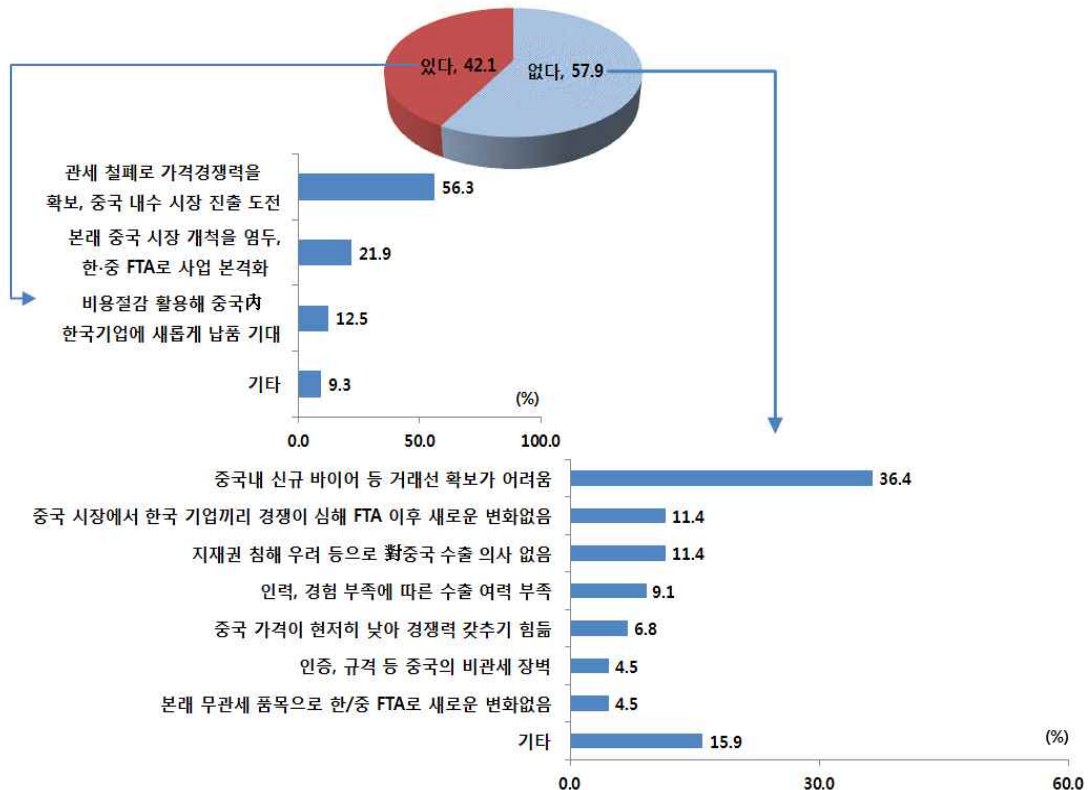
주: N=898

2 對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⁵⁾

① 수출업체⁶⁾

- 對중국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 가운데 42.1%는 FTA를 계기로 對중국 수출을 새롭게 개시할 의향을 밝혔고, 57.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
- 對중국 수출 개시 의향을 밝힌 업체들은 그 이유에 대해 관세철폐 효과로 중국 내수 시장 진출 도전(56.3%), 한·중 FTA로 사업 본격화(21.9%), 비용절감 통해 중국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신규 납품(12.5%) 등의 순으로 응답
- FTA에도 對중국 수출 개시 의향이 없다는 업체들은 그 이유로 신규 바이어 등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36.4%), 중국내 한국 기업 간의 경쟁(11.4%), 지재권 침해 우려(11.4%), 인력·경험 등 수출 여력 부족(9.1%) 등의 순으로 응답

<對中 수출 경험 없는 업체의 FTA 계기 對中 신규 수출 개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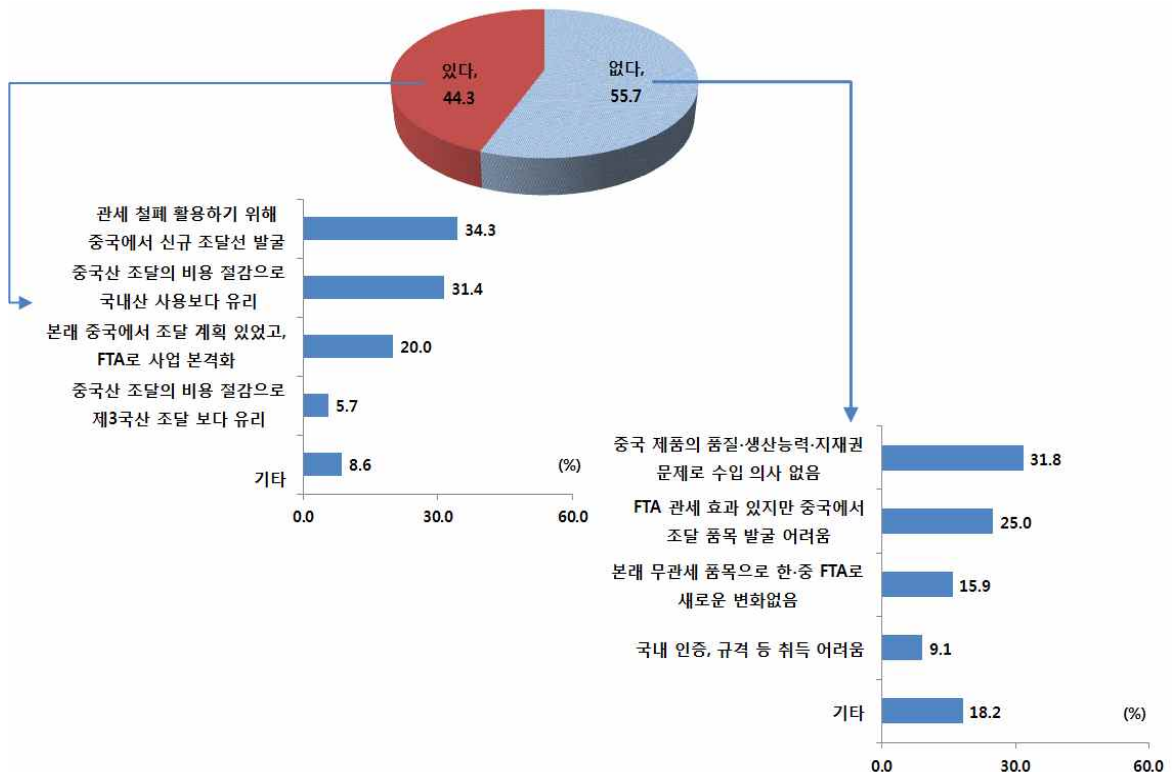
주: N=76

- 5) 유효표본 총 1,212개 업체 가운데 對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는 134개사
 6) 對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 134개사 가운데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 76개사

② 수입업체⁷⁾

- 對중국 수입 경험이 없는 업체 가운데 44.3%는 한·중 FTA를 계기로 새롭게 對중국 수입을 개시할 의사를 밝혔고, 55.7%는 한·중 FTA에도 對중국 수입 의사가 없다고 응답
 - 한·중 FTA 이후 새롭게 對중국 수입 의사를 밝힌 업체들은 그 이유로 관세 철폐 활용해 중국에서 신규 조달선 발굴(34.3%), 비용절감으로 국내 물품 사용보다 유리(31.4%), 한·중 FTA로 사업 본격화(20.0%) 등의 순으로 응답
 - FTA에도 對중국 수입 개시 의향이 없는 업체들은 그 이유로 중국 제품의 품질·생산능력·지재권 문제(31.8%), 중국에서 조달 품목 발굴 어려움(25.0%), 국내 인증, 규격 등 취득 어려움(9.1%) 등을 이유로 꼽았고 15.9%는 무관세 품목으로 영향이 없기 때문으로 응답

<對中 수입 경험 없는 업체의 FTA 계기 對中 신규 수입 개시 의향(%)>



주: N=79

7) 對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 134개사 가운데 수입 경험이 있는 업체 79개사

- 현재 對중국 수입이 없지만 새롭게 수입을 개시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은 현재 對중국 수입이 있는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최종소비제품(17.1%)보다는 부품소재, 원부자재 등 중간재(57.1%)에 큰 관심을 보임

<한중 FTA 이후 수입 증가 예상 품목>

수입 증가 품목 형태	응답(%)
한국내 생산에 활용되는 부품·소재, 원부자재 등 중간재	57.1
중간재 및 최종소비재 모두 확대	25.7
한국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소비제품	17.1

주: N=35

③ 수출입 업체 공통⁸⁾

- 현재 對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들은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에 신규 투자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상당수 계획이 없다(93.3%)고 응답
- 반면에 한중 FTA 이후 합작투자, 자본 참여 등의 형태로 중국 기업 혹은 제3국 기업의 對한국 투자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 53.7%는 그렇다고 응답하고 46.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중국 기업 및 제3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확대에 대한 전망이 많았음

<FTA 계기 중국 현지 신규 투자 계획(%)>



<FTA 계기 중국제3국의 對韓 투자 전망(%)>



주: N=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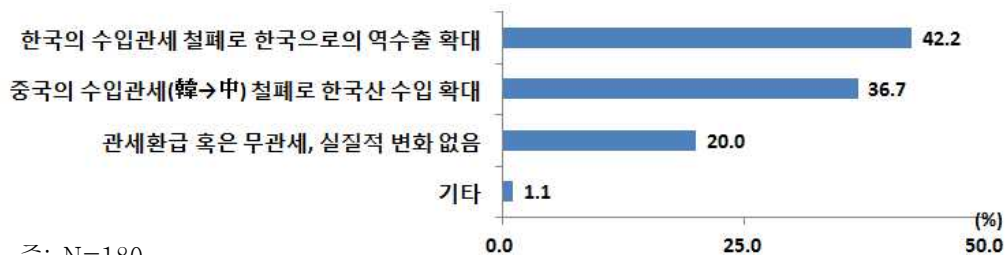
8) 對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는 134개사

3

중국 현지 소재 對中 투자 진출 업체⁹⁾

- 현재 중국 현지에 소재한 對중국 투자 진출 업체들은 한·중 FTA가 양국 무역에 미칠 가장 큰 변화에 대해 42.2%는 중국→한국으로 역수출 확대, 36.7%는 한국→중국으로 수출 확대라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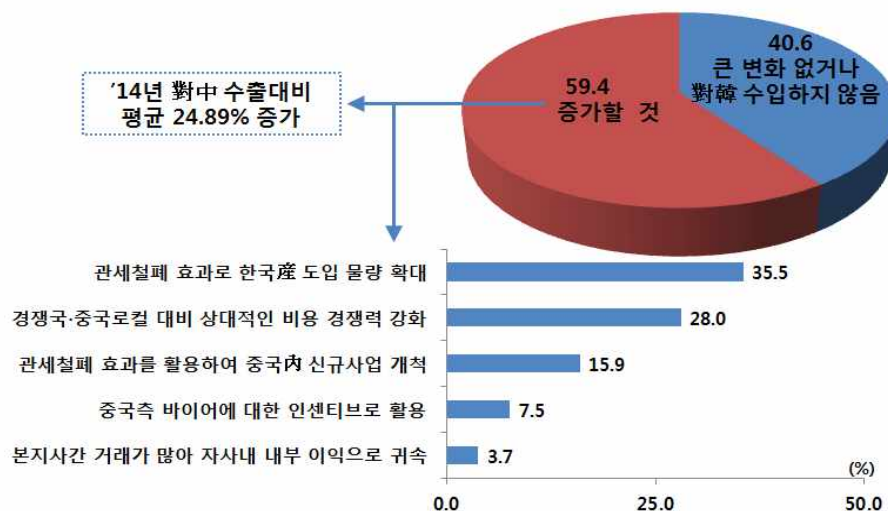
<한·중 FTA가 양국 무역에 미칠 가장 큰 변화>



주: N=180

- 중국 현지 투자 진출 기업의 59.4%는 한·중 FTA 이후 對한국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14년 對한국 수입 대비 평균 24.89%(연간) 증가 전망
- 중국의 수입 관세 철폐분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산 도입 물량 확대(35.5%), 경쟁국·중국로컬 기업 대비 비용 경쟁력 강화(28.0%), 중국내 신규사업 개척(15.9%)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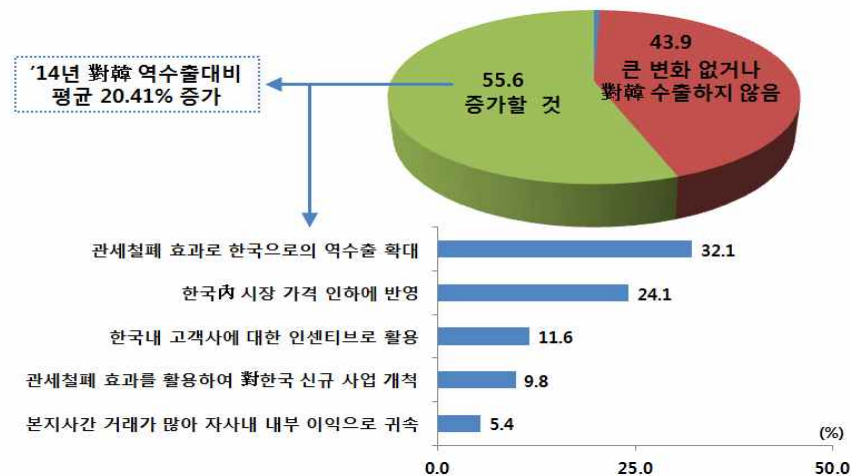
<한·중 FTA 이후 對韓 수입 변화(韓→中 수출) 전망(%)>



9) 유효표본 총 1,212개 업체 가운데 중국 현지 소재 對中 투자 진출 업체는 180개사

- 중국 현지 투자 진출 기업의 55.6%는 한중 FTA 이후 한국으로의 역수출(中→韓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증가 전망치는 '14년 한국으로의 역수출(中→韓 수출) 대비 평균 20.41%(연간) 수준
- 한국으로의 역수출시 생기는 한국의 수입 관세 철폐 효과의 활용 계획에 대해 한국으로의 역수출 확대(32.1%), 한국내 시장 가격 인하에 반영(24.1%), 한국내 수입 고객사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11.6%), 한국내 신규 사업 개척(9.8%) 순으로 응답

<한중 FTA 이후 한국으로의 역수출 변화(中→韓 수출) 전망(%)>



- 현재 중국 현지 투자 진출 기업의 중국내 사업형태는 평균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판매(42.69%), 제3국 수출(30.68%), 한국으로의 역수출(23.98%)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내수시장 판매, 한국으로의 역수출 비중은 소폭 늘어나는 반면 제3국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내수시장 판매(42.69%→44.79%), 한국으로의 역수출(23.98%→24.35%)은 증가, 제3국 수출(30.68%→28.69%)은 감소 전망

<중국 현지 투자 진출 업체의 한중 FTA 전후 사업형태 변화 전망>

한중 FTA 이전		한중 FTA 이후	
내용	평균 비중	내용	평균 비중
중국 내수시장 판매	42.69%	중국 내수시장 판매 위주	44.79%
제3국으로의 수출	30.68%	제3국으로의 수출 위주	28.69%
한국으로의 역수출	23.98%	한국으로의 역수출 위주	24.35%
기타	2.65%	기타	2.16%
합계	100.00%	합계	100.00%

주: N=180

- 현재 중국 현지 투자 진출 기업의 취급 품목은 평균적으로 중간재(52.18%), 최종소비재(47.82%)로 구성되어있으나 한·중 FTA를 계기로 중간재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반면 최종소비재 비중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종소비재(47.82%→48.66%)는 증가, 중간재(52.18%→51.26%)는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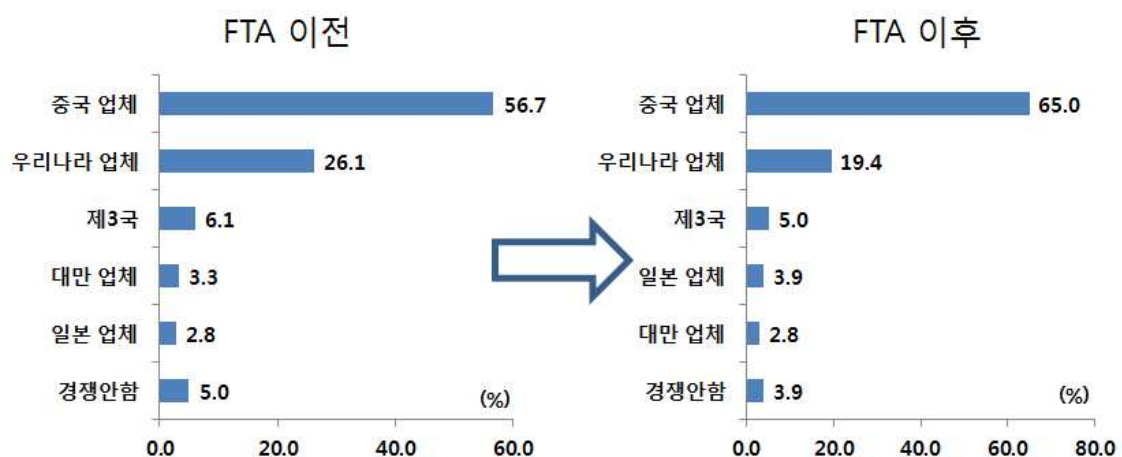
<중국 현지 투자 진출 업체의 한·중 FTA 전후 취급품목 변화 전망>

한·중 FTA 이전		한·중 FTA 이후	
품목	평균 비중	품목	평균 비중
중간재 (투자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	52.18%	중간재 (투자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	51.26%
최종소비재 (시장에서 바로 소비자들이 활용)	47.82%	최종소비재 (시장에서 바로 소비자들이 활용)	48.66%
합계	100.00%	합계	100.00%

주: N=180

- 중국에 위치한 현지 투자 진출 업체들은 한·중 FTA 이전 중국 시장內 최대 경쟁자를 묻는 질문에 중국 로컬 기업(56.7%), 우리나라 기업(26.1%), 제3국 기업(6.1%) 대만 기업(3.3%), 일본 기업(2.8%) 등 순으로 응답
- 한·중 FTA 이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과의 경쟁은 완화되는 반면 중국 로컬 기업과 경쟁(56.7%→65.0%)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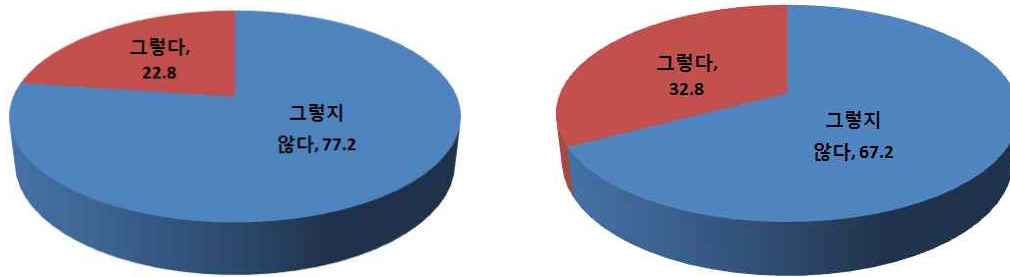
<한·중 FTA 전후 중국 시장 최대 경쟁자(%)>



주: N=180

- 한중 FTA를 계기로 기존 투자를 확대하겠냐는 질문에 중국 현지 투자 진출 업체의 22.8%는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77.2%는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
-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기업 및 제3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가 확대 혹은 신규 투자 유치 전망에 대해서는 32.8%가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고 응답해 기존 투자 계획에 관한 설문 보다 투자 확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22.8%vs.32.8%)
- 중국 현지에서 자체적인 투자 확대 보다는 중국 기업 및 제3국 기업과 협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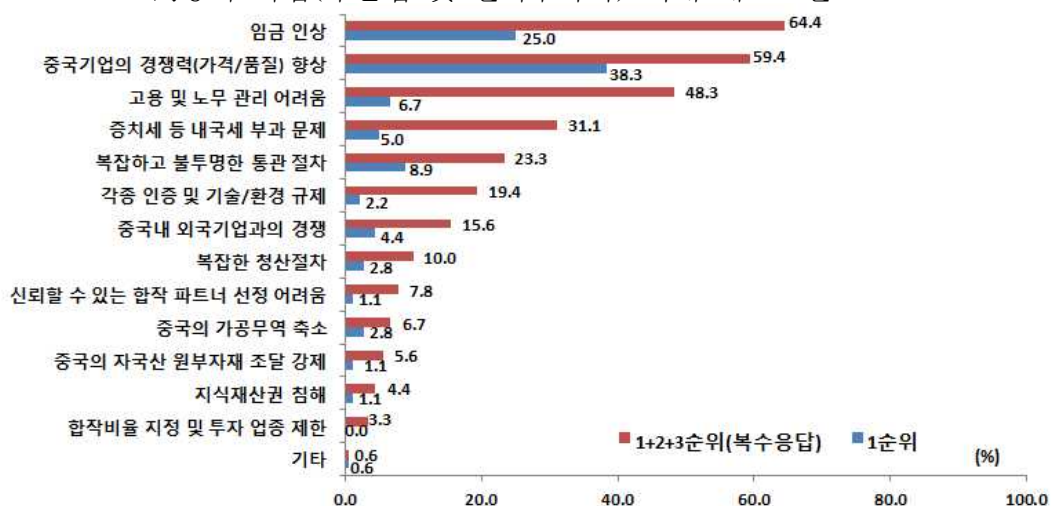
<FTA 계기 중국 현지 기존 투자 확대 계획(> <중국 현지에서 중국제3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확대 및 신규 투자 유치 전망(>



주: N=180

- 중국 현지 진출 업체의 경영상 최대 애로 요인은 임금인상(1+2+3 순위, 64.4%), 중국 기업의 경쟁력(1+2+3 순위, 59.4%), 고용 및 노무 관리의 어려움(1+2+3 순위, 48.3%) 등의 순으로 최근 중국 경영 환경의 변화상을 반영

<對중국 사업(수출입 및 현지투자시) 최대 애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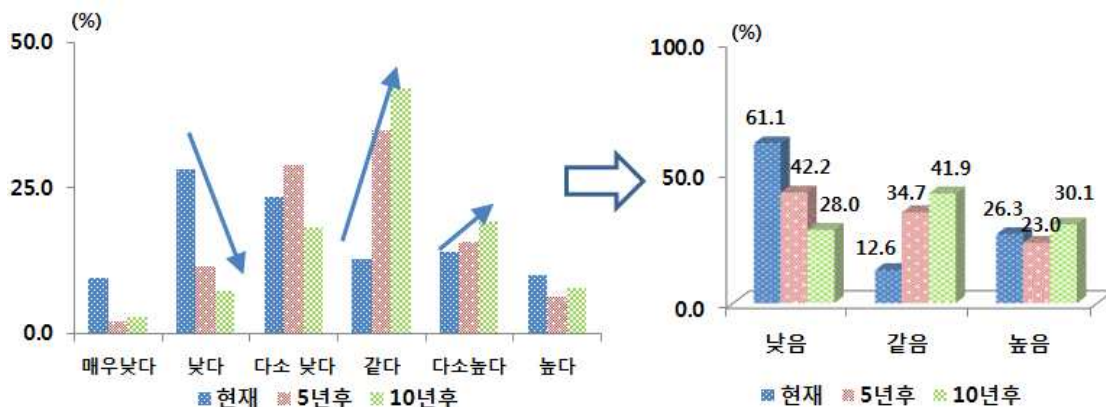
주: N=180

4

응답 업체 전체¹⁰⁾

- 자사 주력품목 대비 중국 경쟁기업의 품질에 대해 현재는 우리 기업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나 중국 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5년후 및 10년후에는 품질 경쟁력이 같거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품질경쟁력은 현재 낮음(61.1%)>높음(26.3%)>같음(12.6%) 등 순이고 5년후에는 낮음(42.2%)>같음(34.7%)>높음(23.0%), 10년후에는 같음(41.9%)>높음(30.1%)>낮음(28.0%) 등으로 나타남
 - 품질경쟁력이 낮다는 의견은 현재(61.1%)→5년후(42.2%)→10년후(28.0%) 등으로 급속히 줄고, 같다는 의견은 현재(12.6%)→5년후(34.7%)→10년후(41.9%)로 급증, 높다는 의견도 현재(26.3%)→5년후(23.0%)→10년후(30.1%)로 증가하는 양상

<중국 기업의 품질경쟁력(자사 주력품목 대비 중국 경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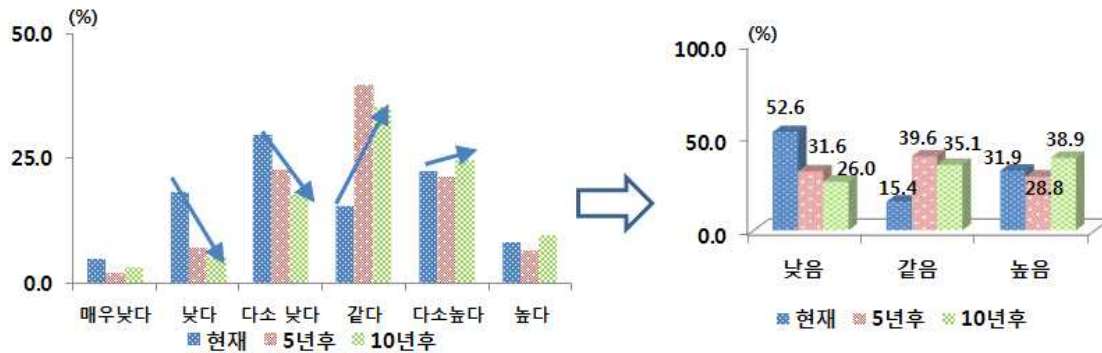


주: N=1,212

10) 유효표본 총 1,212개 업체

- 품질에 가격까지 고려하여 중국 경쟁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한 결과 역시 현시점에서는 경쟁력이 우리 기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나 5년후에는 같은 수준, 10년후에는 우리보다 경쟁력이 앞설 것이라고 전망
- 품질+가격경쟁력은 현재 낮음(52.6%)>높음(31.9%)>같음(15.4%) 등 순이고 5년후에는 같음(39.6%)>낮음(31.6%)>높음(28.8%), 10년후에는 높음(38.9%)>같음(35.1%)>낮음(26.0%) 등으로 나타남
- 품질+가격경쟁력이 낮다는 의견은 현재(52.6%)→5년후(31.6%)→10년후(26.0%) 등으로 급속히 줄고, 같다는 의견은 현재(15.4%)→5년후(39.6%)→10년후(35.1%), 높다는 의견은 현재(31.9%)→5년후(28.8%)→10년후(38.9%)로 나타나는 등 증가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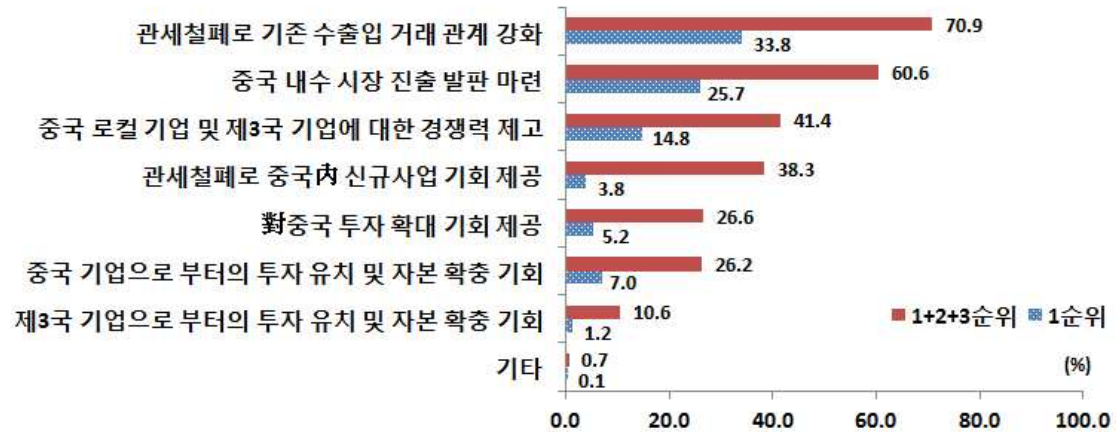
<중국 기업의 품질+가격 경쟁력(자사 주력품목 대비 중국 경쟁기업)>



주: N=1,212

- 종합적으로 한·중 FTA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무역업계는 기존 수출입 거래 관계 강화(1+2+3 순위, 70.9%),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발판 마련(1+2+3 순위, 60.6%), 중국 로컬기업·제3국 기업 대비 경쟁력 제고(1+2+3 순위, 41.4%), 중국내 신규사업 기회 제공(1+2+3 순위, 38.3%), 투자 확대 및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의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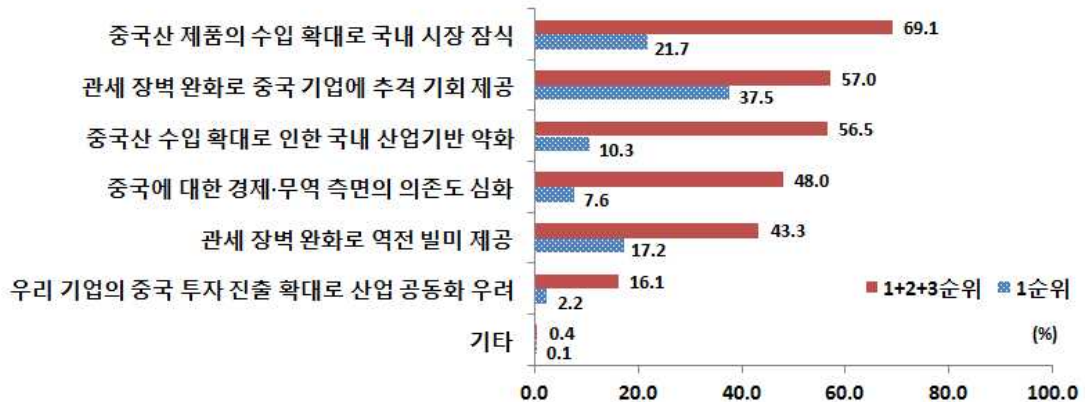
<한·중 FTA가 기업 경영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주: N=1,212

- 종합적으로 한·중 FTA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무역업계는 국내 시장 잠식(1+2+3 순위, 69.1%), 중국 기업에 추격 기회 제공(1+2+3 순위, 57.0%), 국내 산업기반 약화(1+2+3 순위, 56.5%), 중국에 대한 경제 및 무역의존도 심화(1+2+3 순위, 48.0%), 역전 빌미 제공, 산업공동화 우려 등의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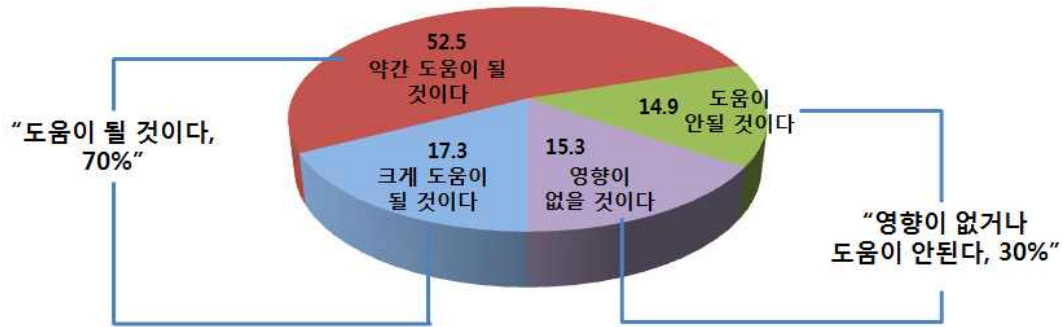
<한·중 FTA가 기업 경영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주: N=1,212

- 전체적으로 한·중 FTA가 중국시장 진출·확대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69.8%)는 응답이 영향 없음·도움 안 된다(30.2%)는 응답을 크게 상회

<한·중 FTA가 중국시장 진출·확대 도움 여부(%)>



주: N=1,212

- 한·중 FTA 이후 우리 정부가 주력해야 할 FTA에 대해 한·중·일 FTA, RCEP, TPP 등 메가 FTA가 상위를 차지했고 양자 FTA 가운데에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GCC 등과의 FTA에 관심이 많았음
- 한·중·일 FTA가 1순위, 1+2+3순위 공히 1위를 차지했고, RCEP은 1순위에서는 2위, 1+2+3순위에서는 3위를 차지, TPP는 1순위에서는 4위, 1+2+3순위에서는 2위를 차지

<한·중 FTA 완료 이후 정부가 주력해야할 FTA>

순위	1순위		1+2+3순위	
	FTA명	비중(%)	FTA명	비중(%)
1	한·중·일 FTA	41.6	한·중·일 FTA	55.0
2	RCEP	13.0	TPP	41.9
3	한·베트남 FTA	9.7	RCEP	33.7
4	TPP	9.1	한·베트남 FTA	28.8
5	한·일 FTA	6.5	한·일 FTA	25.5
6	한·인도네시아 CEPA	5.9	한·러시아 FTA	25.2
7	한·러시아 FTA	4.3	한·GCC FTA	18.2
8	한·GCC FTA	2.8	한·인도네시아 CEPA	17.3
9	한·멕시코 FTA	2.5	한·MERCOSUR FTA	13.1
10	한·태국 FTA	1.3	한·멕시코 FTA	10.0
11	한·MERCOSUR FTA	1.2	한·중미 5개국 FTA	8.7
12	한·말레이시아 FTA	0.7	한·태국 FTA	7.8
13	한·중미 5개국 FTA	0.3	한·말레이시아 FTA	5.9
14	한·이스라엘 FTA	0.2	한·이스라엘 FTA	1.9
15	한·에콰도르 FTA	0.1	한·에콰도르 FTA	1.2
16	기타	0.8	기타	1.6

주: N=1,212

Ⅲ. 결론 및 시사점

- ☐ 무역업계가 전망하는 한·중 FTA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1,212개社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 ☐ 對중국 수출업체의 55.2%가 한·중 FTA로 對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FTA 발효 시 '14년 對중국 수출대비 평균 22.73% 수준의 수출 확대를 전망
- ☐ 중국 현지에 소재한 對중국 투자 진출 업체들의 59.4%도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對한국 수입이 연간 24.89% 증가할 것으로 응답
- ☐ 한편 FTA 발효 후 투자전망에 대해 국내 및 중국 현지 소재 업체 모두 한·중 FTA를 통해 중국 기업 및 제3국 기업으로부터 對한국 투자 및 합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응답군 특성별 조사 결과, 對중국 수출입이 있는 업체의 51.4%, 對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의 53.7%가 對한국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중국 현지 소재 업체들의 32.8%도 중국 및 제3국 기업과의 투자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 다만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기존보다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對중국 수출입이 있는 업체 가운데 중국 로컬기업이 중국 시장 최대 경쟁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FTA 이전 44.4%였으나, FTA 이후에는 50.3%로 응답
 - 중국 현지 소재 업체들도 FTA 이전 56.7%에서 65.0%로 응답 비율 상승

- 이와 관련, 중국 경쟁기업과의 품질경쟁력, 품질과 가격을 함께 고려한 경쟁력 수준에 대해 향후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품질경쟁력은 현재 낮다(61.1%)는 응답이 가장 높으나 10년 후에는 같다(41.9%)는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품질+가격경쟁력에 대해서도 현재는 낮다(52.6%)고 평가하고 있으나, 10년 후에는 높음(38.9%)으로 전망
- 그러나 한중 FTA를 통한 관세감축효과와 전반적인 수출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바, 조사대상의 69.8%가 한중 FTA는 중국시장 진출·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 특히 한중 FTA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기존 수출입 거래관계 강화(1+2+3순위, 70.9%), 중국 내수 시장 진출 발판 마련(1+2+3순위, 60.6%)이라고 응답
 - 현재 對중국 수출이 없는 업체의 42.1%도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을 개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한중 FTA로 신규 수출 창출효과도 기대됨